"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 전원의 브람스, 그 내면의 풍경

# BRAHMS

KBS교향악단 제805회 정기연주회

주최/주관 KBS 교향악단

후원 | 더클래스효성

2024. 9. 4.(Wed) 20:00

롯데콘서트홀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공연 관람 에티켓 5계명**

①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②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 주세요.
③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 주세요.
④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⑤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 PROGRAM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 B♭장조, 작품83** ⓣ 46′

**J. Brahms** **Piano Concerto No.2 in B♭ Major, Op.83**

I. Allegro non troppo (16′)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II. Allegro appassionato (9′)
열정적으로 빠르게

III. Andante (12′)
느리게

IV. Allegretto grazioso (9′)
조금 빠르고 우아하게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브람스** **교향곡 제2번 D장조, 작품73** ⓣ 43′

**J. Brahms** **Symphony No.2 in D Major, Op.73**

I. Allegro non troppo (18′)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II. Adagio non troppo (10′)
느리지만 지나치지 않게

III. Allegretto grazioso (Quasi andantino) (5′)
조금 빠르고 우아하게

IV. Allegro con spirito (10′)
빠르고 활기차게

※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Jean-Baptiste Millot

# JUN MÄRKL
# CONDUCTOR

## 지휘 윤 메르클

윤 메르클은 독일의 교향악 및 오페라 해석의 권위자이며, 프랑스의 인상파 음악을 유려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빈, 베를린, 뮌헨, 드레스덴 젬퍼오퍼 등의 국립 오페라 극장과 오래도록 이어온 관계에 더해, 메르클은 만하임 국립극장 관현악단(1994-2000),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2005-2011), 중부독일 방송교향악단(2007-2012), 바스크 국립 관현악단(2014-2017) 등의 오케스트라를 이끈 바 있다.

메르클은 2021년부터 말레이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그리고 2022년부터 대만 국립 교향악단에서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디애나폴리스 교향악단에서는 음악 자문, 헤이그 레지덴티 관현악단과 오리건 관현악단의 수석 객원 지휘자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메르클은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뮌헨 필하모닉, 함부르크 필하모닉, 오슬로 필하모닉, 클리블랜드 관현악단, 보스턴 교향악단, 시카고 교향악단, 필라델피아 관현악단, 몬트리올 교향악단, 멜버른 교향악단, 시드니 교향악단, NHK 교향악단,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파리 관현악단을 비롯해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바 있다.

메르클은 빈, 뮌헨, 베를린, 드레스덴 젬퍼오퍼 등의 오페라 극장에 자주 초청되었으며, 2006년까지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단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했었다. 1996년엔 바그너의 『신들의 황혼』으로 코벤트 가든 왕립 가극장 무대에 처음으로 올랐으며, 1998년엔 베르디의 『일 트로바토레』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데뷔 무대를 가졌다. 2001-2004년에는 베를린 독일 오페라 극장과 도쿄 신국립극장에서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전곡을 지휘했으며, 드레스덴 젬퍼오퍼와 빈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일본 투어를 돌기도 했다.

메르클은 방대한 50종 이상의 음반을 발매해 방대한 디스코그래피를 자랑한다. NHK 교향악단과는 슈만의 교향곡 전곡을 녹음했으며, 중부독일 방송교향악단과는 멘델스존과 바그너의 음악을,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와는 라벨과 메시앙, 그리고 9CD 분량의 드뷔시 녹음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후자의 공로로 매르클은 프랑스 문화부로부터 3급 문화예술공로훈장을 수훈하였다. 최근에는 호소카와 토시오의 작품으로 세 장의 앨범을, 생상스의 희귀 작품을 녹음한 바 있다.

메르클의 아버지는 뮌헨 출신의 명망 높은 악장이었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다. 메르클 자신은 하노버 국립음악대학에서 공부했고, 뮌헨에서 세르주 첼리비다케를, 미시간에서 구스타프 마이어를 사사했다. 1986년에는 독일음악위원회에서 주최한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이듬해에는 보스턴 교향악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탱글우드에서 레너드 번스타인과 오자와 세이지를 사사했다.

메르클은 젊은 음악가와의 협업에 힘쓰며 정기적으로 삿포로 태평양 음악축제, 콜로라도 아스펜 음악제에서 상임지휘자로 활동했고, 도쿄 쿠니타치 음악대학에서 객원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Jino Park

# MINSOO SOHN
# PIANIST

## 피아노 손민수

독창적 해석과 폭넓은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강렬한 기교와 깊은 음악성을 겸비한 피아니스트 손민수는 캐나다 호넨스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우승과 호넨스 프라이즈 및 부조니, 클리블랜드, 힐튼 헤드, 루빈스타인 등 저명한 국제 콩쿠르에서 연이어 수상하였다. 뉴욕타임스는 손민수의 카네기홀 공연에 대해 안드라스 쉬프와 안젤라 휴이트의 공연과 나란히 언급하고 이후 심도있게 리뷰했다. 또한 그의 바흐 음반에 대해 '아름답고 명료하며 빛나는 해석을 가진 음반'이라는 평과 함께 그해 최고의 클래식 음반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뉴욕 카네기홀, 보스턴 심포니홀, 조단홀, 토론토 글렌 굴드 스튜디오, 오타와 국립예술센터, 클리블랜드 세브란스홀, 샌프란시스코 헙스트극장 등 수많은 북미 주요 무대에 올랐으며 뮌헨 가스타익, 벨기에 팔레 데 보자르, 부에노스아이레스 콜론극장,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등에서 독주회와 협연 무대를 이어갔다. 보스턴 심포니, 이스라엘 필하모닉,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캘거리 필하모닉, 퀘벡 심포니,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 등 세계적 명성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으며, 로렌스 레서, 수렌 바그라투니, 강동석, 조영창, 아비브 콰르텟 등과 함께 연주하였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의 대장정과 함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앨범을 발매하였으며 2022시즌에는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전곡 연주의 전국 투어를 마쳤다. 이후 그는 모차르트의 협주곡 24번과 27번, 베토벤의 협주곡 4번과 5번,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브람스의 협주곡 2번,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3번 등을 같은 시즌에 협연하며 방대한 협주곡 레퍼토리 또한 독창적인 해석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그는 미시간 주립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2023년 가을학기부터 미국 보스턴 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에서 후학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호넨스 국제콩쿠르, 노르웨이의 탑오브더월드 국제콩쿠르, 이탈리아의 부조니 콩쿠르 등 권위있는 국제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초청받고 있다.

# 브람스의 황금기가 빚어낸 걸작들



요하네스 브람스(1833~1897)는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의 음악가다. 음악과 예술 나아가 삶에 대한 순수했던 그의 마음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지구촌 곳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마흔 중반을 향하던 시기부터 그는 확실히 성공한 음악가로 지냈다. 유럽의 여러 출판사에서 러브콜을 받았고, 지난 날 발표했던 그의 작품들이 유럽 전역에서 연주되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 1877년을 기점으로 그는 후원에 의존하지 않는 예술가로,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음악가로 또 한 사람으로 쌓은 그의 자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오늘 감상할 그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과 〈교향곡 제2번〉은 성공가도를 성큼성큼 걸어가던 브람스의 자신감이 담긴 음악적 결론들이다.

*"연주회에서 완벽한 연주가 진행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작곡가로 나는 정확한 공연보다는 리허설에서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연주자들을 바라보는 일이 가장 기쁘다"*

---

*1878년 1월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브룩스 돌렌 호텔에서*
*브람스가 클라라에게 보낸 편지 중*

##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 B♭장조, 작품83

J. Brahms, Piano Concerto No.2 in B♭ Major, Op.83

**작곡연도** 1878년~1881년
**초연** 1881년 11월 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편성** 플루트 2 (제1플루트는 피콜로를 겸함),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2, 팀파니, 현5부
**연주시간** 약 46분

스물다섯의 브람스는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발표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야 그는 두 번째 피아노 협주곡을 썼다. 첫 번째 피아노 협주곡에 대한 혹평들 때문일까. 그는 1878년 5월부터 약 3년 동안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붙잡고 있었다. 그러다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등 르네상스의 발자취를 탐색했던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1881년, 그는 오스트리아 빈 근교의 프레스바움에 머물며 작품 마무리에 속도를 냈다. 초연은 1881년 11월 9일 부다페스트에서 [1] 샌도르 에르켈이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그가 직접 협연했다. 당시 청중의 반응은 무척 뜨거웠고, 곧 유럽 여러 도시에서 그의 두 번째 피아노 협주곡에 대한 연주 요청이 빗발쳤다.

그는 [2] 클라라 슈만에게 "아주 작고 예쁜 스케르초를 포함한 작은 피아노 협주곡을 썼다"라며 이 작품을 소개했지만, 사실 이 작품은 한 편의 거대한 교향곡과 같다. 그는 스승 [3] 에두아르트 마르크센에게 이 작품을 헌정했다. 가장 큰 특징은 고전주의, 낭만주의 피아노 협주곡 형식이 아닌, 4개 악장으로 구성했다는 점. 피아노 독주로 이어지는 카덴차 대신, 4악장을 교향곡적인 구조로 지은 점 등이다. 피아노를 위한 교향곡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특히 이 작품은 피아니스트에게 고난이도의 기교와 음악적인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아니스트 입장에서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협주곡 레퍼토리 중 하나로 손꼽힌다.

**1악장 Allegro non troppo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B♭장조 피아노와 호른 듀엣이 서정적인 주제 선율을 타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이끈다. 플루트와 현 파트의 응답 후, 강렬한 브람스표 피아니즘이 시작된다. 독일의 화음, 풍성하고 수직적이며 다성적인 진행들이 점점 하나로 모인다. 오케스트라 모든 파트는 주제와 힘차게 전진한다. 웅장한 금관 파트의 주도 속에서 피아노는 여러 형태의 진행 변주를 통해 나아간다. 무겁지 않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악장이다.

**2악장 Allegro appassionato 열정적으로 빠르게.** D단조 브람스는 이 악장을 두고 짧은 스케르초 형식이라고 소개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상이다. 피아노 독주로 화려하게 시작하는 첫 마디에 오케스트라는 숨죽이며 선율을 따라간다. 화음의 진행들은 때로는 가냘프고 때로는 아름다운 선율의 현악 파트와 춤추듯 흐른다.

**3악장 Andante 느리게.** B♭장조 제1주제를 피아노 대신 첼로가 맡아 끌고 나간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클라라 슈만이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 속의 내용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 브람스는 훗날 이 주제 선율을 가곡으로 따로 작곡할 정도로 사랑했다. 피아노와 첼로,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서로의 음악을 주고받으며 마치 폭풍과 고요를 넘나드는 음향을 들려준다.

**4악장 Allegretto grazioso 조금 빠르고 우아하게.** B♭장조 마지막 악장은 5개의 서로 다른 주제들이 차례대로 등장하고, 각각 주제들이 분명한 전개와 발전을 이룬다. 특히 함부르크 시절 많은 영향을 받았던 헝가리 음악 특징들이 짤막하게 등장해, 이색적인 음색을 자아낸다. 무척 빠른 템포로 휘몰아치는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는 박력 있고, 명쾌한 마지막 음을 향해 달려간다.

## 브람스, 교향곡 제2번 D장조, 작품73

J. Brahms, Symphony No.2 in D Major, Op.73

**작곡연도** 1877년 6월~9월
**초연** 1877년 12월 30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편성**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3, 튜바, 팀파니, 현5부
**연주시간** 약 43분

작곡가로 음악가로 승승장구하던 시기의 브람스는 1877년 여름, 현재 오스트리아의 최남단 퍼르차흐에서 여름휴가를 보냈다. 호수 뵈르트 호의 풍광을 무척 사랑했던 그는 두 번의 여름을 이곳에서 보냈다. 재혼한 아버지, 이혼한 어머니, 자신의 그늘에 가려 늘 미안해했던 남동생에게 생활비를 보내며 살아갔던 그가 생애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해 쉴 곳을 찾아갔던 것일까. 일종의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이었다고 할까. 예술가에게 이런 장소는 곧 창작의 세계로 향하는 비밀 통로일지도 모른다. 그는 이곳에서 〈교향곡 제2번〉을 단 4개월 만에 완성했다. 〈교향곡 제1번〉을 발표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 이 작은 호숫가 마을에서 그는 영혼의 쉼 그리고 작곡가로 활기에 찬 에너지를 받았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그와의 인연을 기념하고자, 지난 1993년부터 매년 가을 포르자흐에서는 〈국제 요하네스 브람스 콩쿠르〉가 열린다.

---

**참고 문헌** 『브람스 평전』(2017) 이성일 지음, 풍월당 펴냄
『요하네스 브람스』(2001) 요하네스 브람스, 타이라 에이번스, 죠셉 아이징거 지음, 옥스포드 대학교 출판사 펴냄

1. 샌도르 에르켈(1846~1900) 헝가리의 작곡가, 지휘자, 헝가리 국립 오페라의 감독이다.
2. 클라라 슈만(1819~1896) 독일의 뛰어난 피아니스트이자 로버트 슈만의 아내다. 브람스가 평생 사랑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다. 클라라가 사별한 후, 브람스와 어떤 관계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 두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서로의 곁에서 마치 친구 같은 사이로 지냈다.
3. 에두아르트 마르크센(1806~1887) 독일의 피아니스트, 작곡가, 음악 교사다. 어린 브람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4. 독일의 유명 출판사 짐로크를 세운 니콜라우스 짐로크(1751~1832)의 손자. 프리츠 짐로크(1837~1901)은 3대에 걸친 가업, 악보 출판업을 발전시켜, 당대 여러 음악가들의 작품을 악보로 출판했다.특히 브람스의 추천으로 드보르자크의 여러 작품을 출판했는데, 이는 드보르자크의 음악을 유럽에 빠르게 소개할 수 있었던 디딤돌이 되었다.

1877년 11월 22일 브람스가 이 작품의 초판을 발행한 짐로크 출판사의 [4] 프리츠 짐로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이렇게 슬픈 음악을 써본 일이 없다. 이 교향곡은 애도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총 4악장으로 구성된 〈교향곡 제2번〉은 1877년 12월 30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라인에서 지휘자 한스 리히터가 이끄는 빈필하모닉의 연주로 초연되었다. 이날 빈 청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으며, 인기에 힘입어 곧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그리고 암스테르담과 함부르크에서도 연주되었다. 특히 그는 함부르크 초연에서 직접 지휘 했는데, 고향을 그리워했던 그에게 잊지 못할 무대로 남았다. 그는 이 작품을 〈네 손을 위한 피아노 소품〉으로 편곡하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 자주 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브람스가 남긴 4개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브람스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1악장 Allegro non troppo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D장조 제1주제는 현 파트에서 목관 파트에서 호른으로 이어진다. 제2주제는 제1주제를 이끌던 목관과 호른과 함께 비올라, 첼로가 발전시킨다. '브람스표 교향악'의 특징 중 하나인 전체 화성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그러나 또렷하게 브람스의 〈자장가, 작품49의 제4번〉의 선율과 함께 흐른다. 발전부는 호른과 오보에, 플루트가 주도적으로 끌고가며, 재현부에서 다시 제1주제를 목관 파트와 현 파트가 마무리한다.

**2악장 Adagio non troppo 느리지만 지나치지 않게.** B장조 첼로와 바순, 바이올린과 플루트가 제1주제를 대위법으로 쌓아가다, 목관으로 제2주제를 받아간다. 발전부에서는 제1주제가 바이올린으로 이어지며, 재현부는 제1주제를 중심으로 다시 펼쳐진다. 브람스만의 서정적인 인상이 깊은 악장으로, 현 파트의 낮은 음역과 목관 파트의 품위 있는 선율이 화음을 이룬다. 특히 팀파니의 울림이 아름답다.

**3악장 Allegretto grazioso(Quasi andantino) 조금 빠르고 우아하게.** G장조 오보에가 들려주는 제1주제는 경쾌하게 여러 악기로 변주된다. 제4악장의 여러 요소를 미리 제시하는데, 재빠르고 활기찬 현 파트와 목관 파트의 선율들이 재치 있게 어우러진다.

**4악장 Allegro con spirito 빠르고 활기차게.** D장조 브람스는 4악장의 작곡을 마친 이후에, 악장의 빠르기를 총 3차례 바꿨다. 처음에는 '빠르게 보통 빠르기로 활기차게(Allegro moderato ma con brio)'에서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Allegro non troppo)'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르고 활기차게'로 정했다. 그의 교향곡 중에서 유일하게 튜바를 편성한 악장이다. 발전부와 재현부는 제1주제를 다시 들려주며, 코다에서 금관 파트를 중심으로 막을 내린다. 굉장히 신나고 들썩이는 분위기 속에서 브람스가 말했던 슬픔들이 기쁨으로 변화하는, 굉장히 화려한 결론의 피날레다.

**글** 정은주 (음악 칼럼니스트)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YouTube KBS교향악단



INTERVIEW

인터뷰 전문 보기

# 손민수에게 브람스를 물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에피소드를 모은 〈알아두면 쓸모 있는 클래식 잡학사전〉의 저자 정은주 작가가 이번 공연을 앞두고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인터뷰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각색한 내용이다.

**Q. 피아니스트로 바라본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은 어떤 작품인가요?**

**A.** 피아니스트로서는 무엇보다 가장 높은 산맥들 중 하나라고 느껴집니다. 피아노라는 악기를 통해 펼쳐낼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열고 그의 젊은 시절의 패기와 열정이 깊이 드러나는 1번 협주곡을 작곡하고 20년이나 지난 이후 작곡된 2번 협주곡은 그만큼 더 깊어지고 숭고한 그의 음악세계가 더 정제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저에게 있어 브람스는 슈만과 클라라 그리고 언제나 그의 뒤에 있었던 베토벤 사이에서 자신만의 음악을 일구어 나간 위대한 작곡가였지만 그가 음악 안에서도 사용했던 자유롭게 그러나 고독하게(Frei abereinsam, Free but lonlely) 문구처럼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Q. 브람스 〈피아니스트 협주곡 제2번〉 감상 포인트가 있나요?**

**A.** 첼로 솔로로 시작되는 3악장은 브람스가 이후 그의 〈가곡집 작품번호 105〉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꿈도 사랑도 다 잃어버린 한 사람의 상실의 마음을 그린 두 번째 가곡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가곡들과 시들도 너무 아름다워서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손 교수님께서 읽어보라고 추천해 준 들라쿠르아의 〈일기〉가 가장 감동 깊었다"라고 말한 것을 봤습니다. 책을 가까이하고 책의 가치를 아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피아니스트로, 한 사람으로 손 교수님의 인생에 책은 어떤 영향을 준 대상인지요?**

**A.** 제가 처음 미시간에서 집을 얻고 집 내부 사진을 셔먼 선생님께 보여드렸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의 책장에 책들이 왜 저만큼 밖에 없느냐?" 였습니다. 이미 학창시절 독서를 늘 권유하시고 책들을 추천하시고 늘 레슨에 가면 새로운 책을 읽고 계신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읽어야 되고 읽고 싶은 책들을 발견하는 과정도 처음에는 셔먼 선생님의 책들을 몰래 따라 읽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예술가가 늘 찾고자하는 영감의 근원은 책과 자연 속에 있습니다.

**Q. 음악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연주자로 성장하려 노력하는 청년 음악가들에게 용기와 힘이 될 수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모든 인간에게는 고유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고 고귀한 정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음악을 해야만 한다면 음악이 목표가 되지 않고 일상이 되는 삶을 꾸려 나가면 좋겠습니다.

CREV 2024

LOTTE CONCERT HALL

# Classic Revolution
# 클래식 레볼루션 2024

## 9 SEPTEMBER CALENDAR

### 7 SAT 5PM

**인천시향의**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

지휘 | **이병욱**
협연 | **최하영**(Vc)

### 8 SUN 5PM

**수원시향의**
**<베토벤 교향곡 제2번>**

지휘 | **최희준**
협연 | **김태형**(Pf)

### 9 MON 7:30PM

**한경arte필의**
**<리스트 파우스트 교향곡>**

지휘 | **최수열**
협연 | **이범주**(Ten) 합창 |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 10 TUE 7:30PM

**경기필의**
**<베토벤 교향곡 제6번>**

지휘 | **김선욱**
협연 | **미치아키 우에노**(Vc)

### 11 WED 7:30PM

**KBS교향악단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5번>**

지휘 | **샤오치아 뤼**
협연 | **레오니다스 카바코스**(Vn)



2024. **9.7** SAT — **9.11** WED 롯데콘서트홀

R석 11만원 | S석 9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주최 | 롯데문화재단

예매 및 문의 | 롯데콘서트홀 1544.7744 www.lotteconcerthall.com interpark yes24 티켓링크

www.classicrevolution.net

공연정보확인



##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 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트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등 세계 최정상의 지휘자들이 KBS 교향악단을 이끌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2022년 제9대 음악 감독으로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자가 취임하며 현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함으로서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참가해 공식 연주 평가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하였다. 2024년 8월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아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코로나 시대에도 KBS의 온라인 4채널을 모두 동원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3천여 명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클래식 음악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오픈하며 고품격 음악콘텐츠의 무료 제공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 콘텐츠 허브로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 | |
|---|---|
| **사장** | **한창록** |
|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 **피에타리 잉키넨** |

| **단원** | **악장* 부악장** 수석+ 부수석++** |
|---|---|
| **제1바이올린** | 최병호** 반선경+ 유신혜++ |
| |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
| | 강내윤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
| |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
| **제2바이올린** | 권민지+ 임정연++ 안지현++ |
| |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
| |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
| | 김지민 이유진 |
| **비올라** | 진덕+ 한넬리++ |
| |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
| |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이유현 |
| **첼로** | 김우진+ 윤여훈++ |
| |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
| | 김신애 유소향 안예진 |
| **더블베이스** | 이창형+ 김남균++ 안수현++ |
| |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
| **플루트** | 김태경++ 이철호 전서영 |
| **오보에** | 이지민+ 김종아++ 조성호 |
| **클라리넷** | 이승훈++ 박한 양수현 |
| **바순** | 박준태+ 고주환++ 김소연 정순민 |
| **호른** |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김현준 |
| **트럼펫** | 남관모+ 김주원++ 정용균 김승헌 |
| **트롬본** | 윤지언 |
| **베이스트롬본** | 정다운 |
| **튜바** | Norito Usui |
| **팀파니** | 이원석+ |
| **타악기** | Jason Yoder+ 장세나 Matthew Ernster |
| **하프** | 김서원 |

| **객원수석** | |
|---|---|
| **악장** | 김소영*<br>(Bayerisches Staatsorchester 제1바이올린 단원) |
| **플루트** | 안명주+ |
| **클라리넷** | 채재일+ |
| **호른** | Samuel Jacobs+ |
| **트롬본** | 김성수+ |

| **사무국** | |
|---|---|
| | **사무국장** 신승원 |
| |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
| **공연기획팀** | **팀장** 손유리 |
| |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
| | **대리** 전현정 최난희 |
| | **인턴** 위가을 허효정 |
| (공연지원파트) | (악기담당)**단원** 유재식 정오준 |
| | (악보담당)**과장** 장동인 |
| **공연사업팀** | **팀장** 강길호 |
| | **차장** 이한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
| | **사원** 차하영 장태형 |
| **경영관리팀** | **팀장** 손대승 |
| | **차장** 유연철 유정의 박연선 |
| | **사원** 윤자윤 |

| **한국예술종합학교** | **인턴십 2기** |
|---|---|
| **제1바이올린** | 김수연 |
| **제2바이올린** | 박예진 이예령 |
| **비올라** | 이태형 |
| **첼로** | 김유림 심수연 |
| **바순** | 최찬열 |
| **호른** | 민예원 |
| **트럼펫** | 이영훈 |

## KBS 교향악단 후원회
KBS Symphony Orchestra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등급 | 후원금액 | 기간 | 등급별 혜택 |
|---|---|---|---|
| **Symphony** | 1억원 이상 | 10년 |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포함 교통, 숙박 제공)<br>-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 단체 위한) |
| **Concerto** | 3천만원 이상 | 5년 | - VVIP만찬<br>-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
| **Cantata** | 1천만원 이상 | 2년 | - VIP만찬<br>-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
| **Nocturne** | 5백만원 이상 | 1년 |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br>- 후원의 밤 행사 초청<br>- 정기연주회 주차권 증정<br>-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
| **Prelude** | 1백만원 이상 | 1년 |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br>- 연주 Lecture 초청<br>-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br>-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
| **Etude** | 1십만원 이상 | 1년 | - 공통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 및 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공연장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 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o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재)KBS교향악단 전화 I 02-6099-7407 / 010-4932-3061
andy@kbssymphony.org

후원회 가입 권장

##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상임이사** **한창록** KBS교향악단 사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수희** KBS 시청자센터장
**한경천** KBS 예능센터장
**김병진** KBS 라디오센터장

## KBS교향악단 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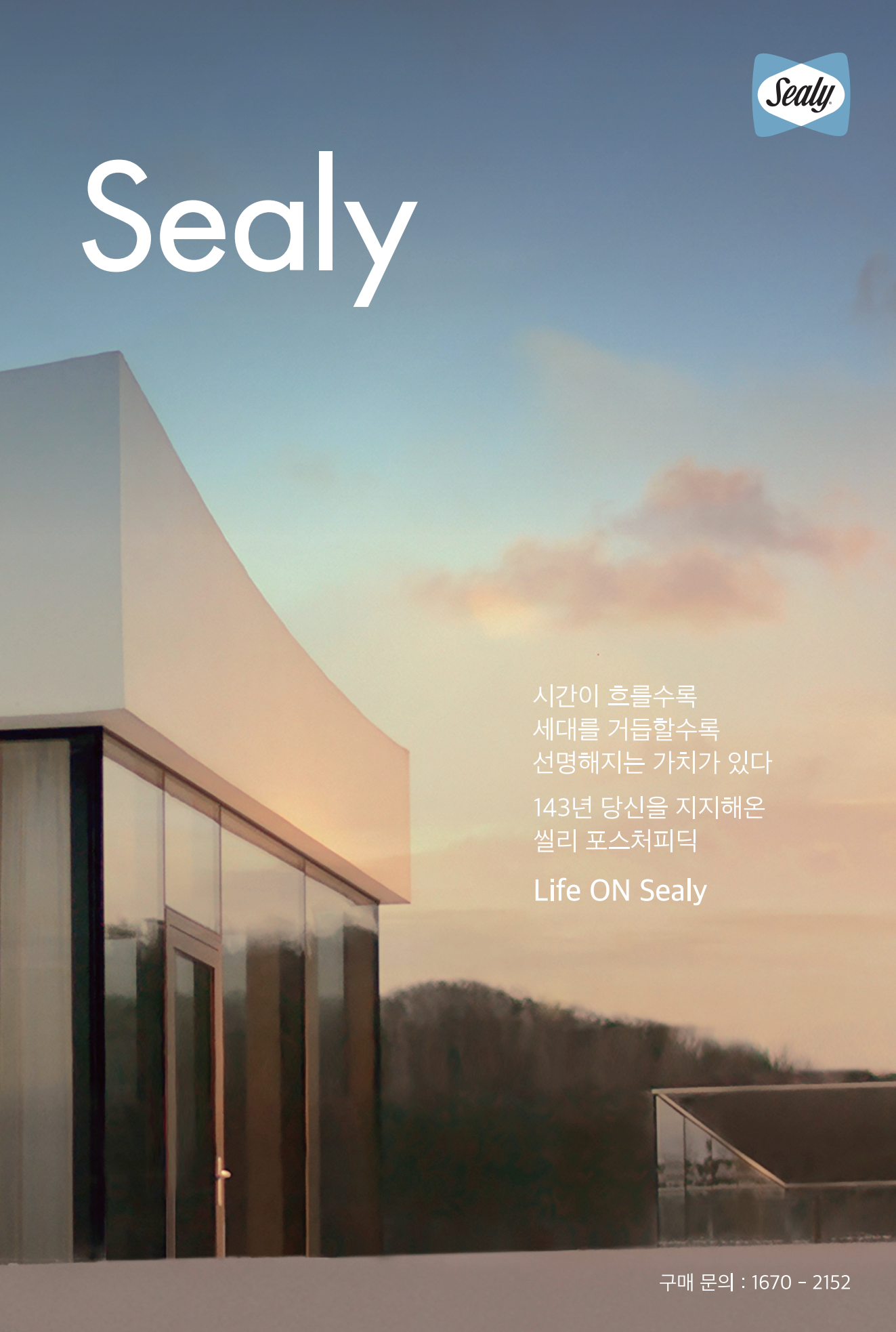
**Concerto**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앤에프 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이영애** 배우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자산운용**

**Cantata**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 / 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명환** (주)덕신하우징 회장
**김효수** (주)효석 대표
**문양호** (주)동영관광 대표
**민성우** 에스엠글로벌코리아(주) 대표이사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옥** 전)KBS교향악단 사장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신한투자증권**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이윤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이충희** (주)듀오 회장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최명배** (주)엑시콘 사장
**허승현** PHA 사장
**KDB산업은행**

**Nocturne**
**교보문고**
**국은주**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김영기** 변호사
**이종원** H&O 코리아 대표
**이황일** (주)하어스엠 대표
**정옥선** (주)세이프케미컬 대표
**NH투자증권**

**Prelude**
**곽동욱**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도영** 변호사
**김승종** 전)KBS감사
**김영선** KBS PD
**김영철** 배우
**김용**
**김은영**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대외협력 이사
**김진오** 변호사
**김한나** 변호사
**김희연** 전)KBS교향악단 첼로 단원
**노기용**
**박상현** (주)발렉스 대표이사
**박옥균**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오지연** 변호사
**유수엽**
**유순신** (주)유앤파트너즈 대표
**윤종효** 씰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장희용** 변호사
**전병율**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변호사
**정용실**
**정인채** (주)초록숲 대표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조용상** 가천대학교 교수


Life ON


Sealy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선명해지는 가치가 있다
143년 당신을 지지해온
씰리 포스처피딕
Life ON Sealy
구매 문의 : 1670 - 2152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KBS교향악단**

www.kbssymphony.org
@kbssymphonyorchestra
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KBS교향악단
facebook.com/kbssymphony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혹은 'kbssoforever')